

# 충청남도 3농혁신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

조영재(曹永在)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

## 1.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전망

### 1) 농업의 미래전망

#### ○ 산업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 진행

- 미래 농업은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의 모습이 공존하고 양극화 형태로 진행될 것임

#### ○ 농업경영 및 소비패턴의 양극화 진행

- 규모화 된 대량생산 체계를 갖춘 대농 위주의 농업과 고령농, 중·소규모 농가 위주의 농업의 양극화와 함께 소비패턴의 양극화도 진행될 것임
- 대농(대규모 농가) 위주의 농업은 첨단농업기술 발전과 함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재편되고 대량생산-대량유통 구조를 바탕으로 광역 소비와 수출시장을 주도하고, 전문농어업경영체, 대규모 기업농이 등장하기 시작
- 중·소농(소규모 고령농) 위주의 농업은 친환경농업과 농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생산-틈새시장 유통 구조를 형성하고, 소비자 친화형 로컬푸드 시장을 주도할 것임
- 소비패턴은 상류층을 포함한 중산층 이상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영양과 건강, 안전과 신뢰, 가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패턴으로 고착화되고, 빈곤층 및 저소득층은 여전히 가격과 양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패턴을 보일 것임

####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첨단기술농업 및 농생명 바이오산업의 발전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기초로 한 과학적 스마트농업(smart agriculture) 기반이 확충될 것이며, 특히 ICT, IT, NT, ET 등의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완전제어형 식물공장(또는 수직농장) 등이 이슈화 될 것임

#### ○ 전문 농업경영체 중심의 전업농 재편

- 농업구조가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재편되어 전업농 생산비중의 대부분을 점유할

-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청장년 전업농 및 농업법인이 지역농업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여 건실한 중소기업 수준의 경영자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될 것임
- 또한, 대규모 농산물 유통회사(조합)가 계열화 형태로 조직화 되어 전업농들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이들 조직체가 국내유통을 지배하고 수출시장에 진출할 것임

#### ○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대 및 농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 증가

- 미래 건강·장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 더 웰빙,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이와 함께 식품소비 패턴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호하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할 것이며, GAP, HACCP 등이 확대 정착될 것임

#### ○ 농가 고령화의 진전 및 고령친화농업(실버농업)의 부상

-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전체 농가인구 대비 2005년 29.1%(999,306명)에서 2010년 31.1%(921,729명)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농어촌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실버농업이 부상하게 될 것임

#### ○ 유통체계 및 소비패턴의 변화

- 인터넷과 IT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더욱 빠르게 진화할 것이며, 물류체계와 관련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 공동출하 비율이 빠르게 진전되어 유닛로드시스템(ULS), 저온유통체계(cold-chain system) 등의 선진유통체계가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전자태그(RFID)가 바코드시스템을 완전 대체하고, 사이버마켓(virtual market)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산자-소비자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 식품판매장 등이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에서 소비자 중심 및 수요·시장 지향의 유통체계로 변화될 것이며,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가격 및 품질 중심에서 가치와 신뢰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도농교류, 도시농업, 소비자협동조합 등이 활성화 될 것임
- 특히,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건강한 지역먹거리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확대·정착될 것이며, 주로 중·소농, 가족농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의 유통이 로컬푸드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

## 2) 농촌의 미래전망

### ○ 도농복합화(Rurbanization)와 공동화 현상이 동시 진행

- 대도시 주변지역을 시작으로 농어촌의 도시화, 혼재(混在)·혼주(混住)화 등이 일어나는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국토연구원(2009)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는 국토의 95%가 도시화가 진행되고 2050년에 이르면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중산간 지역이나 산간 벽·오지 지역 등 소외된 마을을 중심으로는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심지어 소멸하는 마을들이 다수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공간적·사회적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임

### ○ 교통의 발달 등으로 인한 농촌 정주체계의 변화

- 교통의 발달, 농촌과 도시의 구분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정주체계가 무너지고, 특히 전통적으로 읍·면소재지가 갖고 있었던 거점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이러한 기능의 대부분이 인근 거점도시나 대도시로 흡수될 것임
- 한편, 인근 거점도시나 대도시에서 충족하기 힘든 복지 및 여가 등 현장밀착형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 활동 및 네트워크 등의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중심거점마을 또는 커뮤니티가 등장하게 될 것임

### ○ 새로운 커뮤니티 및 전원주거문화 형성

- 귀농·귀촌 및 혼재(混在)·혼주(混住)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농어촌의 구성원이 기존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을 포함하여 귀농·귀촌인, 비농어업인, 도시인 등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임
- 또한, 기존에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완화됨과 동시에 농어촌의 경관 및 어메니티를 중시하고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대도시 주변지역이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부터 도시화가 진행되고 새로운 전원주거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임

### ○ 농촌어메니티 및 다기능성(가치) 중시

- 이제까지 농어촌은 식량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평가되었다면 미래 농어촌은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재평가될 것이며, 특히 농업·농촌이 지닌 사회·경제·환경적인 다면적 기능과 농어촌

어메니티의 가치가 중시되고, 이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한 도농교류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임

- 이러한 농업·농촌의 가치 재발견이 곧 농산물 및 농식품의 유통·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기능 농업의 정착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3) 농업인의 미래전망

#### ○ 농업인과 함께 비농업인·도시민이 농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확대

- 농업인과 함께 비농업인(겸업농, 귀촌인 등), 도시민 등이 새로운 농정주체로 등장할 것이며, 이들은 농업·농촌 활성화의 중요한 인적자원의 역할을 할 것임
- 기존의 농업인은 지속적으로 농정의 핵심주체로 농업·농촌의 1차적 중심인력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전업농 중심의 전문농업경영체 형성을 주도할 것임
- 비농업인과 도시민을 중심으로 신농업인의 등장과 농어업6차산업화, 도시농업 활성화 등을 주도할 것임

### ○ 농정 주체의 확대와 소비자 참여 중시

- 농촌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가 기존의 농업인 중심에서 비농업인과 소비자를 포함한 도시민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농정의 주체가 확대되고 더욱 다양화 될 것임
- 농업·농촌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이 농업인만의 단순한 경쟁력 강화에 의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에는 농업인 외에 비농업인, 소비자 및 도시민의 참여에 의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창출하고 이러한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임

### ○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농업인(신농업인)'의 등장

- 2020년 이후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도 농어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활용하는 창의 계층(creative class)이 거주하게 되면서 지식기반산업, 실버산업, 고령자, 여성 등에게 적합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 아울러, 귀농·귀촌 컨설턴트, 도시농업 컨설턴트, 농촌유학 프로그램 매니저, 지역문화 해설사 등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미래농업인(신농업인)'이 등장할 것이며, 이러한 '신농업인'은 농식품의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농어업6차산업화, 농어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성장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 비물질적 측면의 '행복' 중시 가치관 확대

- 도시와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려 했던 경향에서 상대적 격차해소 보다는 개개인의 현재 모습에서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복지분야에서도 종합적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와 체감형 복지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갈 것임

## 2. 충청남도 3농혁신 미래비전 및 목표

### 1) 미래비전 관련 키워드

#### ○ 영역적 측면

- 친환경·안전한 먹거리
- 지역순화식품체계(로컬푸드) 및 소비혁신
- 농어업6차산업화

-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및 '내발적 발전'
- 다기능 농업
- '행복' 추구

#### ○ 접근 대상 및 방법론적 측면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재발견'
- 다양한 영역한 '통합 및 융복합'
- 농정주체의 확대
-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 2) 기본원칙

- 하드파워, 행정주도 → 소프트파워, 민간협력 파트너십
- 대외경쟁력 강화 → 협동과 연대, 지역 네트워킹 강화
- 외부의존형 발전 → 지역 내발적 발전
- 생산기반 중심 → 가공·유통·마케팅으로 확대
- 관행적 접근방식 → 창조적·역발상적 접근

## 3) 비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충남 농어업·농어촌"**

- 지속적인 3농혁신을 통하여 단순하고 관행적인 농정정책 및 추진방식을 탈피하여 창조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고, 도농 상생공동체와 행복한 미래를 완성해 가는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실현

## 4) 목표

#### ○ 농어업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적·사회적 농어업의 실현

- 단순한 식량생산이 아닌 도민 및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접근, 지역소비자의 참여 및 재발견을 통한 농어업의 새로운 가

## 치창출의 실현

### ○ 농어촌 : 미래 농어촌을 준비하는 도농상생 공동체 만들기

- 농어촌의 내발적 발전과 미래공동체를 지향하고, 이를 위해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교류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미래 농어촌을 준비

### ○ 농어업인 : 도민이 주체가 되고 모두가 행복한 충남 농어업.농어촌의 실현

-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체계적 인력 육성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도민이 주체가 되는 농정거버넌스를 확립

## 5) 농정(3농혁신) 기조 변화

구분	이전 ~ 민선5기	민선6기	2030년
혁신 단계	3농혁신 준비 및 도입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확충 (과도기적 접근)	안정적인 혁신 도모
참여 주체	- 농어업인 → 농어업인 + 일부 소비자	- 농어업인 + 소비자 (소비자 참여 확대)	- 농어업인 + 도민(소비자 /도시민)
접근 방식	- 의사결정체계 부재 → 다양한 관련주체 참여 시도 - 중앙정부 사업 의존 → 혁신사업 발굴 및 사업별 혁신 도모 - 폐쇄적·한계적 접근 → 참여적·시범적 접근	- 참여주체의 확대 및 협력적 의사결정시스템 확립 - 미래농정 패러다임과 핵심가치 반영 - 농정전체에 대한 종합적 혁신 도모 - 포괄적·다양성의 측면에서의 체감 가능한 접근	- 도민에 의한 의사결정, 도민 참여에 의한 사업추진 - 통합적·목적별 사업추진 및 혁신 도모 - 개방적·창조적 측면에서의 가치 지향적 접근
농어업 전략	- 관행적 경쟁력 강화 → 주요 테마에 대한 새로운 혁신 시도	- 주요 테마 및 분야별 혁신 도모(생산,유통,소비)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향	- 가치 재발견 및 공유, 공감대 확산을 통한 새로운 접근의 혁신도모
농어촌 전략	- 공간(H/W) 중심 → 내발적 역량(S/W) 중심 - 하향식 개발 → 마을 중심의 상향식 개발 시도	- H/W + S/W의 조화 - 마을 및 지역중심의 혁신 시도(생활+생산기반 구축)	- S/W + (H/W)의 통합 (S/W 중요성 확대) - 도농상생(공간개념 소멸) + 다양한 공동체 중심
농어업인 전략	- 생산기술 중심의 역량 강화 → 농어업 + 농어촌 역량 강화 - 삶의 질 중시 → 삶의 질 + 종합적 복지	- 농어업 + 농어촌 역량 강화(소비자 참여 시도) - 거버넌스형 합치농청 - 삶의 질 중시 + 맞춤형 복지	- 농어업·농어촌 역량강화 + 도민(도시민) 참여 - 행복 중시 + 체감형 복지

### 3. 충청남도 3농혁신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충청남도 3농혁신의 5대 혁신분야별 추진전략>

	5대 혁신	추진전략	16대 분야 (20대 핵심과제, 64개 중점사업)
농어업	생산혁신	미래지향적 농수축산업 육성 및 착한 먹거리의 생산	친환경·농산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R&D
	유통혁신	농산물 유통선진화 및 농어촌 융복합 산업의 육성	유통, 6차산업, 농식품산업
	소비혁신	소비자가 참여하는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로컬푸드, 소비운동
농어촌	지역혁신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삶터·일터·쉼터가꾸기	마을만들기, 생산·생활기반, 도농교류
농어업인	역량혁신	미래를 책임지는 인력육성과 농정주체의 확대	인력육성, 농어촌복지, 거버넌스

#### ○ 생산혁신 : 미래지향적 농수축산업의 육성 및 착한 먹거리의 생산

- 친환경·농산업 : 「자연과 순환하는 친환경·고품질 농업을 육성」-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업 및 순환복합영농체제를 구축
- 안전축산 : 「자연친화형 축산을 위한 지속가능한 생산·유통 환경 조성」- 자원순환형 및 고품질 생산체계와 안전축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 임업 : 「산림자원가치 제고 및 임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 임산물을 발굴·보급하고, 임산물 유통구조를 확대하며, 목재산업 및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성화
- 수산업 : 「명품 수산물 육성 및 어촌특화산업 전략적 기반 마련」- 충남 4대 명품 수산물을 육성하고,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 및 수산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
- R&D : 「지역 맞춤형 미래농업 기술개발 및 현장보급 확대」- 미래농업 대응기술과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현장보급 및 실천 확산

#### ○ 유통혁신 : 농산물 유통선진화 및 농어촌 융복합 산업 육성

- 유통 : 「산지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및 「지역농식품의 프리미엄 시장 개척」- 산지 중심의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최고급 농식품 특화기반을 조성
- 6차산업화 : 「농어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로 부가가치 창출」- 지역 맞춤형 6차산업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경영안정화 지원체계를 구축



- 농식품산업 : 「지역 먹거리의 산업화 추진」- 지역내·외 외식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전통식품의 산업화를 추진

○ 소비혁신 : 소비자가 참여하는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

- 로컬푸드 : 「지역순환형 로컬푸드 소비체계 강화」 및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시스템 구축」- 학교급식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공공부문 공급 및 '미더유'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공급체계를 확충
- 소비운동 :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운동 확산」 및 「지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착한 소비·식생활 운동'을 전개하며, 농식품 안전성 강화와 도시농업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

○ 지역혁신 :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삶터.일터.쉼터 가꾸기

- 마을만들기 : 「내발적 발전기반 확립 및 마을과 지역혁신 도모」-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을재구조화 및 지역혁신 모델을 발굴·육성
- 생산·생활기반 : 「미래형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촌어메니티 창출」- 영농기반 및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경관만들기 추진 및 충남 농어업유산 발굴·육성
- 도농교류 : 「소셜팜(Social Farm) 및 도농상생 기반 확충」- 소셜팜 운영기반을 확충하고 도농교류센터 설립 및 프로그램 개발, 제도개선 등 추진

○ 역량혁신 : 농어촌 미래인력 육성 및 농정주체의 확대

- 인력 : 「체계적인 농어촌 인력 발굴 및 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확대」
  - 현장중심 농어촌 리더·농어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현장지원 프로그램을 강화
- 농어촌복지 : 「충남형 농어촌 복지체계의 확립」- 농어촌 주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충남의 실정에 맞는 농어촌 밀착형 복지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 거버넌스 : 「참여주체 확대를 통한 협치농정의 실현」- 3농혁신의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추진기반을 확충하며,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농어업·농어촌 DB 구축·관리

## 4. 충청남도 3농혁신 미래상

### 1) 미래상

#### <충청남도 3농혁신의 미래상>

부문	미래상	2030년 계획지표
농어업	○ 생산 -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고령화 사회 대비 -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로 순환경 자연환경 조성	○ 전문농업경영체의 농업생산 점유율 : 70% 수준으로 확대 ○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4.9% → 15%
	○ 유통 - 전업농 중심의 수직계열화 유통체계 - 광역브랜드 구축 및 수출시장 주도 - 농어업6차산업화로 안정적인 경제공동체 육성 - 농식품산업, 외식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충남도 광역브랜드 농산물 유통비중 : 10% → 80% ○ 농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규모 : 5조 2천 억 원 → 7조 원 ○ 외식산업에서 지역농식품 및 가공식품 사용 비율 : 1% 미만(추정) → 10%
	○ 소비 - 농어업·농어촌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소비자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 친환경농업 인증 : 5.5% → 15% ○ GAP 인증 : 2.6% → 30% ○ HACCP 인증 : 1% 미만(추정) → 10% ○ 로컬푸드 농산물 유통 비율 : 3%(추정) → 20%
농어촌	- 내발적 발전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기반 마련 - 귀농귀촌 및 전원주거문화의 확산을 통한 도농상생공간 창출	○ 도농교류 및 도농상생 마을 비율 : 10% (추정) → 50% ○ 마을만들기 추진 마을 비율 : 20%(추정) → 50%
농어업인	- 농어업인과 함께 비농어업인(소비자, 도시민)의 농정참여 확대 - 다양한 미래인력의 육성 및 모두가 행복한 농어촌 조성	○ 비농어업인 농정참여 비율 : 50% 수준으로 확대 ○ 생산가능 농가인구 비율 : 56.7% → 70% ○ 농어촌복지 수혜자 및 참여자 비율 : 10% 증대 ○ 농어촌주민 만족도(행복도) : 20% 증대

## 2) 미래모습

